

# 러 “우크라이나군 또 격퇴”...우크라이나 “동부전선 공세 진행”

### “우크라이나군 병력손실 1천500명...탱크 28대 파괴” 우크라이나 “그런 정보 없어...바흐무트 주변 전진”

우크라이나가 예고해온 ‘대반격’을 개시했는지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 본토 접경지에서는 친(親)우크라이나 성향 러시아 민병대가 연일 포격에 나서고 한 리시야 마을을 장악했다고 주장하는 등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도네츠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또 다른 대규모 공격을 저지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이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오전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주에서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 8대를 포함한 탱크 28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도네츠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 병력의 총손실이 1천500명이 넘으며, 탱크 28대 외에 장갑차 100대도 파괴했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4일 도네츠크주의 5개 전선에서 6개 기계화 대대와 2개 전차 대대를

동원해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지만 러시아군이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5일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대해 “우리는 그러한 정보가 없고 어떤 종류의 가짜에 대해서도 논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일부 지역에서 공세적 행동으로 전환했다고 인정하면서 동부 바흐무트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 CNN,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한나 말라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은 5일 텔레그램을 통해 “군이 동부 전선에서 공격을 수행하고 있고, 바흐무트 주변에서 여러 방향으로 전진했다”고 밝혔다. 말라르 차관은 바흐무트 북부 오리호보-바실리우카 정착지와 파라스코우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클리시우카 인근 전선에서 군사용 차량들이 파괴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우카에서 200-1천600m, 남서부 이바니우스케와 클리쉬우카 주변에서 100-700m 일대를 탈환했으며 러시아군은 방어태세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흐무트뿐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여러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오늘은 우리 군대에 성공적인 날”이라고 자평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야간 화상 연설에서 “군이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을 전했다”며 “모든 전사자에게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바흐무트는 지난 수개월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격전지였으나 러시아군은 지난달 초 이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바흐무트 주변을 지키면서 탈환을 다짐하고 있었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군 당국은 6일 새벽 키이우 지역 방공 시스템이 공습을 격퇴하는데 동원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개시를 부인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 내부에서는 대반격 징후가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러시아 본토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에 반대하는 친우크라이나 성향 러시아 민병대가 연일 포격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후쿠시마 원자로 손상 “문제없다” 도쿄전력에 日규제위 “재검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호기 내부 손상에 따른 여러 우려에 “문제없다”를 반복해온 도쿄전력에 원자로 격납용기 내 압력용기를 떠받치는 부분(토대)의 손상과 관련하여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6일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 열린 검토 회의에서 압력용기를 지지하는 부분의 손상으로 압력용기가 떨어져 방사성 물질이 건물 밖으로 비산하는 경우에도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고했다. 도쿄전력은 압력용기가 떨어져 격납용기에 구멍이 생기는 최악의 사태를 맞더라도 발전소 주변의 피폭선량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고 시의 기준치를 밑돌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12월까지 이동식 필터 등 설비 설치도 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자력규제위는 상황 가정이 불충분하며 재검토를 희망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규제위 사무국인 원자력규제청은 방사성 물질로 세습만 방출될 것이라는 도쿄전력의 설명에 “다른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피폭선량이 더 커질 상황을 검토하도록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해저터널 안으로 해수를 넣는 작업을 하는 등 일본이 올해 여름 무렵 강행을 예고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가 한 발 더 나아갔다고 현지 지역 민방인 후쿠시마TV가 지난 5일 보도했다. 사진은 탱크로 오염수가 보관된 후쿠시마 제1 원전.

록 요구했다. 또 상정할 수 있는 지진 등의 규모도 더 높이고 상세한 대처 절차를 검토할 것도 요청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1호기의 압력용기를 떠받치는 토대 부분의 손상은 수중 로봇 조사를 통해 지난 3월 확인됐다. 이에 원자력규제위는 압력용기가 낙하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 제시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도쿄전력은 압력용기를 지지하

는 토대 부분이 붕괴할 가능성은 작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일본이 올해 여름 무렵 오염수 방류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현지 지역 민방인 후쿠시마TV가 5일 도쿄전력을 인용해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해저터널 안으로 해수를 넣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원전에서 바다까지 판 약 1km의 해저터널을 통해 오염수를 내보낼

예정인데, 이를 위해 터널 안에 바닷물을 채워놓는 절차에 나선 것이다. 이 방수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미 굴착 작업을 완료하고 최근에는 터널 안에 남아있던 각종 기기 등을 치우면서 자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의한 검사를 받아들였다. 방수는 관련 공사가 이달 말 완료될 전망이다 결국 설비 측면에서의 준비는 정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이구아수 폭포서 ‘동전 120kg ↑’ 수거

남미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는 이구아수 폭포(사진)에서 120kg 이상의 동전이 수거됐다고 브라질 언론이 전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경을 나누고 있는 이구아수 폭포 중 브라질 쪽 국립공원에서는 5일(현지시간) 국립공원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폭포수에 던져진 동전을 수거하는 작업을 벌였다. 공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120kg 이상의 동전이 수거됐으며, 약 2천헤알(한화 약 33만원)에 해당하는 양이다. 수거가 끝나면 양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 관리자에 따르면 “일부 관광객들이 이곳에 와서 소원을 비는 의



미로 동전을 던진다”고 말했다.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폭포에 던져진 많은 양의 동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해되고, 니켈 및 구리와 같은 중금속이 방출되며 수질 오염을 유발한다. /연합뉴스

## 사람보다 개가 먼저?...칠레 병원에서 개 방사선 치료 논란

남미 칠레의 한 병원에서 진료 외 시간에 개에 방사선 치료를 시행해 의료 윤리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5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수도 산티아고 남쪽에 있는 로스리오스주 발디비아의 국립 병원에서 개 한 마리가 비강(코) 부위 종양 치료를 위해 선형 가속기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다. 선형 가속기는 종양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을 정도의 방사선 용량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사선 치료 장비다. 해당 병원 측은 개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한다. 의료단체는 즉각 반발 성명을 내고 “(주인이) 동물을 돌봐달라고 요청했다고 쳐도 동물병원이 아닌 이상(병원) 관계자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며 개를 치료하게 된 절차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문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